

광주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30% 감축

시, 주행거리 탄소포인트제 등 5개 부문 829억 투입

광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줄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2030 미세먼지 저감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안전한 푸른도시 실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5개 부문, 18개 사업에 829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은 확대·시행한다. 지난해 26

㎍/㎡인 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21㎍/㎡, 2030년에는 유럽 수준인 18㎍/㎡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유럽 주요 도시 미세먼지는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가량이다. 시는 수송 부문에서 운행차 주행거리 탄소포인트제 신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6개 사업에 210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협약,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1억여원이 쓰인다. 생활 부문에서는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시기 살수 차량을 동원해 도로면 먼지를 제거하는 등 3개 사업에 337억여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측정·분석 부문에는 낡은 대기오염 측정망 장비 교체 등 2개 사업에 12억여원을 투입해 측정자료에 대한 신뢰성

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보·기타 부문에는 가로정원 조성사업과 캠페인 전개 등 4개 사업에 239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 대기질은 특별·광역시 가운데 5년 연속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진국에는 못 미친다. 주요 오염원은 자동차(47%), 건설장비 공사현장(36%), 가정(13%), 제조업(4%) 순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봉사정신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박창순 광주소방본부 항공구조대장 정년퇴직

5500시간 무사고 베테랑
장학금 천만원 기부 예정
“시민 위해 여생 바칠 것”

“그동안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잠아왔던 조종간을 이제는 놓게 됐습니다. 퇴직 후에도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베테랑 조종사’ 박창순(61) 광주소방본부 소방항공구조대장이 36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27일 정년퇴직한다.

“지금껏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광주시소방본부 녹수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한다.

박 대장은 1981년 군에서 헬기 조종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550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군에서 13년, 경찰에서 3년을 근무한 뒤 1997년 소방항공구조대가 창설 당시 대장으로 취임해 20년을 근무했다.

그런 그도 5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울컥 눈물부터 나온다.

“90명의 조종사 동기들 중 13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리 조종을 잘해도 한순간 사고로고 목숨을 잃어요. 갑작스런 위기에 온몸이 땀으로 젖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장은 2001년 흑산도 버스 전복 사고로 출동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당시 안개도 많고 바람도 강해 비행 자체가 위험했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무사히 6명의 위급한 자를 후송해 생명을 살려냈다.

또 2014년 7월 강원 소방헬기 추락 사고 당시 기억도 있을 수 없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광주에서 동고동락하던 후배 조종사들이 그동안 고생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추락 중에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한 지점을 찾았을 것이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러다.

박 대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일심동체를 이뤄 함께한 구조·구급대원, 항공정비사 등 동료들에게 가장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간 항공사들의 제의를 뿌리치고 고향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어 광주로 내려온 그는 공직생활 중에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년간 주택 무상임대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에도 남몰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공직생활 내내 봉사정신으로 살아온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 비행에 나서는 후배들 모두 무사하길 기원합니다.”

/박기용기자 pboxer@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가속도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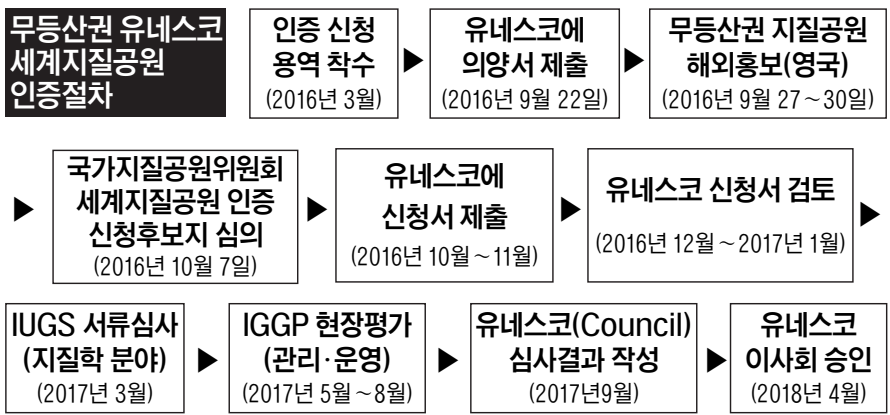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전남도와 함께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 인증신청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대한지질학회와 신청서 작성 용역계약을 했다.

이번 인증 신청은 2014년 12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216.31㎢를 대상으로 했으며, 서석대와 임석대, 화순 운주사, 서유리 공룡 화석지 등 지질명소 20곳은 지질 특성에 따라 6개 군으로 분류했다.

인증 신청은 절차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거쳐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지질공원위원회가 인증신청 후보지를 심의한 뒤 11월 유네스코에 영문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인증신청서 검토,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이 이뤄진다.



절차가 순조로우면 2018년 4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기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영국 리비에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리는 제7회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 의향을 발표하고, 홍보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은 지난 4월과 5월 무

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 예비심사에 참여한 세계지질과학연맹,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관계자들로부터 주상절리 등 가치를 인정받았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무등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는다면 국제도시로서 광주·전남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수습기자 필기시험

광주일보 제65기 수습기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25일 광주시 동구 대학원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열정 넘치는 인재들이 도전하면서 이날 시험은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이 직접 선택한

고속열차 새 디자인 확정

코레일은 23일 국민이 직접 선택한 새로운 고속열차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9~15일 코레일 누리집과 철도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국내 첫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EMU)의 외부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했다.

조사는 차기 고속차량의 외형 디자인 시안 3개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코레일 누리집과 서울·대전·부산·창원 중앙·순천역에서 진행됐으며, 모두 2만 1000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와 디자인경영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코레일은 선정된 디자인을 새 고속열차 제작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 결과 국민 2만800명 중 52.7%가 해당 디자인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디자인경영자문단 심의에서도 9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새 디자인의 고속열차는 2020년 이후 경전선, 경부·호남 고속선 등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65기 수습기자 필기시험 합격자

김우형 김한영 김해영 모정현 박수지 박진영 서창원 양아영 유민호 장영근 전은재

※ 28일 면접 전형
시간·장소는 개별통보합니다.

‘토요일은 휴일’ 달력 빨간색 표기 법개정 추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지역업체 중에는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달력에도 ‘파란색’으로 표기돼 있어, ‘빨간 날이 아니니 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토요일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달력을 제작하는 업체의 자의적 판단일 뿐,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과학자 출신인 국회의원이 달력제작의 표준을 만

들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 날로 표기한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 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윤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제작한다.

/연합뉴스

인사말씀

이번에 저희 부친 (고 김인수회장, 명성예식장 대표)님의 장례식에 바쁘신 와중에도 정중한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슬프고 당황하여 일일이 찾아 뵙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우선 지면을 빌어서 머리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9월 26일

아들	김영주	김은철		
딸	김희정	김소현	김미라	김성희
며느리	정해숙	정수경		
사위	정종연	조영수	엄인용	
손자	김준범	김유환		
손녀	김하민	김유민		

(자) 명성예식장

사람을 찾습니다

- 162cm의 야원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 실종 당시 삼정게이트볼 글자가 자주로 놓인 검은색 쥔,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곤색 말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3차례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 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17평 ▶ 감평가 2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2003년식) ▶ 감평가 41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층일반주거지역 ▶ 감평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층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평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망좋음 ▶ 감평가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 ▶ 감평가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 좋음 ▶ 감평가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 좋음 ▶ 감평가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금매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접 상업지역 대지132평 전면넓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환경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